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Adolescents' Maladjustment in terms of Type and Source of Social Support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사 李 暉 珠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申 淳 植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Kyeong Ju, L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 : Hyo Shick, Shi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dolescents' maladjustment in terms of type and source of social suppor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 social support source, the mean score of peer support was higher than family support. In social support type, the mean score of expressive support was higher than other support type.
2. Social support source was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 of the children, educational level of the father and mother, and income. Social support type was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 of the children, educational level of the father and mother. Maladjustment were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 of the children, educational level of the father and mother, income,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he mother.
3. In social support source, i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ll

maladjustment subscale in family support and to over-anxiousness, social withdrawal, and hyperactivity in peer support. In social support type, i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over-anxiousness and social withdrawal in expressive support, to social withdrawal, over-anxiousness, hyperactivity, and delinquency in esteem support, and to over-anxiousness in informational support.

1. 서론

가족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핵가족화, 가족의 이동성 증가, 취업주부의 증가, 부모분화와 정신병리 현상의 증가 등의 변화를 보이고, 또한 과열된 교육 열과 대중매체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인하여 가족원의 생활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더우기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진로준비 등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많은데 비하여 인지적, 정서적 발달은 미숙한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내·외적 변화에 대처하는데 이에 따른 적절한 자기 통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응을 일으키기 쉽다. 이에 대한 많은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발달적 변화들이 우울을 일으킬 수 있으며(장휘숙, 1995),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자살, 약물복용, 과음으로 빠져들기 쉽고,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제시하는 규준을 거부한다(Calabrese, 1987) 고 하였다.

한편,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달리, 가족이외의 타인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이들 간의 관계의 질이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발달적인 접근에서도 성인 초기까지 중요한 타인에게 지지, 애정,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자아상(self-image) 형성에 중요한 근원이 된다(Sarason, Pierce, Bannerman, & Sarason, 1993) 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지어 Kaplan, Robbins 와 Martin(1983)은 청소년에게 있어 또래와 가족으로 부터의 지지박탈은 자기거부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거부와 사회적 지지의 결핍이 청소년기 적응에 중요한 선행요인이 되며, 사회적 지지가 한 개인의 정서적 위기, 행동의 부적응, 환경적

스트레스의 완충작용을 해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조직망의 성원들이 청소년에게 어떤 사회적 지지를 주고 있는가와 청소년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편이므로 이들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과 부적응의 차이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통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 유형의 특성을 밝혀 이들의 심리적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사회적 지지

지금까지 진행된 사회적 지지 연구는 크게 세 측면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첫째, 성인 연구에서 개발된 사회적 지지 정의를 아동과 청소년 연구에 그대로 적용시킨 점(Kaplan, Robbins & Martin, 1983)이

며, 둘째,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나 측정기술이 일관성이 없고(Sarason & Sarason, 1985),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도구도 부족한 점(Bruhn & Philips, 1984)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를 객관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측정할 것이냐의 측정방법상의 문제이다(House, 1981). 이처럼 사회적 지지 연구에 제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적응/부적응을 논할때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면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란 광의로 볼때, 개인의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긍정적인 자원을 말하며(Cohen & Hoberman, 1983), 여기에는 타인에게서 애정, 관심,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 자신에 대한 인정 등을 제공받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갖는 유용성은 사회적 지지의 유형 및 원천에 따라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청소년의 생활상태의 환경적인 맥락을 알려주는 다양한 지지원과 지지유형이 적응/부적응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자녀는 가족, 또래, 교사, 친척, 이웃 등 다양한 근원으로 부터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 특히 가족과 또래에게서 받는 지지는 다른 근원에서 받는 지지보다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즉, 가족의 지지가 자녀의 적응/부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Lefkowitz & Tesing, 1984; Elliott, Huizinga & Ageton, 1985)와 가족은 자녀에게 지속적인 관계망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족 지지는 자녀의 적응/부적응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기 시작과 함께, 또래를 선호하며 의존하는 동조행위가 증대되어가는 시기이므로 이들 또래와의 지지도 가족 지지와 함께 중요한 지지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유형은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들 각각은 독립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여러 경험적 연구(김명숙, 1994; Cohen & McKay, 1984; Schaefer, Coyne & Lazarus, 1981)들이 지지 유형을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정보적 지지 등으로 구성

하여 이들 유형이 적응/부적응의 예언 변수로 밝히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도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 관점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를 지지원과 지지유형으로 분류하여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며, 청소년 자신이 지각하는 지지를 평정하는 방법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일수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1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명숙, 1994; 한미현, 1993). 이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사회 지지망이 더 넓다(Berndt, 1981; Bryant, 1985)고 한 반면, 반대의 결과를 보고(Dubow & Ullman, 1989)한 경우도 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김명숙, 1994; 한미현, 유안진, 1996; Cochran & Brassard, 1979), 소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한미현, 유안진, 1996), 모의 결혼만족이 높을수록(Heller, Swindle & Dusenbury, 1986),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Dubow & Ullman, 1989) 지지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제한적인 연구결과이므로 청소년층과는 다소 양상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성별, 부모의 학력, 소득, 모의 결혼만족도 등의 변인을 포함시켜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부적응

부적응은 정신건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결여되어 있고, 사회문화적 기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홍경자, 1985).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적응이란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적응 유형은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러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며 때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상이하게 구분된다고 보여진다. Donovan과 Jessor(1985)는 청소년과 성인 초기를 대상으로 이들의 부적응 유형을 음주,

불법적인 약물이용, 비행행동, 성행동으로 구분하였으며, 임상이나 연구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chenbach와 Edelbrock(1978)의 아동행동목록(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은 정신병, 우울, 사회적 위축, 과활동성, 공격성, 비행성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CBCL분류에 기초하여 경험적인 연구가 최근에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다(오경자, 이해련, 1990; 한미현, 유안진, 1996). 본 연구는 CBCL자료에 근거하여 청소년 자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 유형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며, 행동의 평정방식은 교사나 자신의 보고식보다 부모의 보고식이 더 타당하다(Dubow & Tisak, 1989)고 지적하고 있어,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 분석하고자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에 관련된 변인을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부적응 유형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공격성, 과잉활동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았으나, 불안, 우울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홍강의, 홍경자, 1985; Colten, Gore, & Aseltine, 1991)고 하였다. 상류계층의 아동이 가장 낮은 부적응 점수를 보였고(Achenbach, 1978), 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의 직업이 노무직에 종사할수록,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아동의 부적응이 남녀 모두에게 높게 나타났다(한미현, 유안진, 1996; 홍강의, 홍경자, 1985). 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취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한미현, 유안진, 1996). 또한,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만족할수록(Gove & Crutchfield, 1982), 양육태도가 일관성이 없고 체벌의 사용이 빈번하며(Steinberg, 1987),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김경숙, 1993) 부적응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응 영역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분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적응의 하위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결과가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부적응의 하위영역을 세분화시켜 검토해보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

사회적 지지가 적응/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으로 보게 되었다.

심리적, 물질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가족, 친구, 배우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은 정신건강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어(Leavy, 1983),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이나, 생활속에서 예측력과 안정감, 자기가치의 인식을 주기 때문에 심리적 복지와 관련됨을 시사하였다(Cohen & Wills, 1985).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지지와 청소년의 부적응간에 부적응 관계를 밝혔다. 즉, 부모의 지지나 애착이 강할수록 자녀의 음주, 비행 등의 부적응이 낮게 나타났으며(Barnes & Windle, 1987), 부모의 지지와 감독이 청소년의 알콜남용과 비행을 예방해주는 중요한 사회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Barnes & Farrell, 1992). 또한, 가족 지지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고(Felner, Ginter & Primavera, 1982), 우울(Lefkowitz & Tesing, 1984), 비행(Elliott, Huizinga & Ageton, 1985), 불안(Patterson, 1982; Procidano & Heller, 1983), 공격성(Barber & Rollins, 1990)등이 낮았다.

또한, 또래 집단은 청소년기 동안 부모이외의 중요한 사회화 작용을 하게 된다. 즉, Barnes와 Windle(1987)은 중대한 진로결정과 가치판단에 부모의 의견과 반대될 때, 또래의 가치를 따르는 청소년이 불법적인 약물복용, 알콜사용 등 부적응의 높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결과를 보면, 또래 지지가 거부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욱 공격적임이 나타났고, 청소년 초기에 또래 지지가 거부된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포함하여 이후의 부적응을 예측해준다(Asher & Dodge, 1986; Coie & Dodge, 1983)고 밝혀, 공격성과 또래의 지지 거부와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를 가족과 또래 등의

지지원에만 관심을 갖고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지지원외에 지지유형까지 포함시켜 분석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Berndt & Perry, 1986; Dubow & Ullman, 1989; Wolchik, Beals & Sandler, 1989).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지지원 및 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부적응과의 관련성을 고찰하면서 동시에 부적응 하위 영역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양상이 다소 다를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 상호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남녀 1, 2학년(13, 14세) 434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 1, 2학년은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으로 보여지며, 중학교 3학년은 고교입시로 인하여 사회적 지지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들을 제외시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학생이 225명, 여학생은 209명이었으며, 부의 학력은 고졸(40.6%), 모의 학력도 고졸(50.9%)이 많았다. 소득은 100~199만원(53.2%) 집단이 많았으며 부의 직업은 사무직(28.8%), 자영업(23.5%), 모의 직업은 전업주부(67.7%)인 경우가 많았다. 모의 결혼만족도를 보면 만족(59.9%)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특성에서 본 바와 같이 부모의 학력은 고졸, 소득은 100~199만원 정도, 부의 직업은 자영업과 사무직의 비율이 높아 중류층 자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 측정도구

사회적 지지는 Dubow와 Ullman(1989), 박지원(1986), 김명숙(1994)의 척도를 참고하였다. 지지원은 가족과 또래에게서 받는 지지가 부적응과 관련성이

높다고 지각한 결과를 토대로, 두 측면으로 나누어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지유형은 타인에게 애정, 관심, 격려 등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정서적 지지, 칭찬이나 인정을 의미하는 자존감 지지, 문제 해결과 관계된 여러가지 정보, 조언 등을 제공해주는 정보적 지지로 나누어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지 수준은 5점 척도화시켰으며, 지지 유형의 12번 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이므로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가족 지지 .88, 또래 지지 .84, 정서적 지지 .91, 정보적 지지 .79, 자존감 지지 .87로 나타났다.

부적응은 Achenbach와 Edelbrock(1978)이 제작한 CBCL를 근거로 하였고, 오경자, 이해련(1990), 홍경자(1985)의 척도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부적응 유형으로는 우울, 사회적 위축, 과잉불안, 과활동성, 공격성, 비행성의 6개 요인으로 총 24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들 영역의 특성을 보면, 우울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는 등의 성향, 사회적 위축은 위축되어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는 성향, 과잉불안은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는 등의 성향을 보인다. 과활동성은 유난히 소란스럽다든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지나치게 움직이는 등의 성향, 공격성은 말다툼이나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등의 성향, 비행은 가출, 도박,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의 성향을 보인다. 각 문항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부적응 표출 정도에 따라 3점 척도(0~2점)로 평정하게 되었다. 이 도구의 신뢰도(Cronbach' α)는 우울 .76, 사회적 위축 .66, 과잉불안 .60, 공격성 .60, 비행 .69, 과활동성 .64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1996년 6월 26일~7월 5일 사이에 중학생 남녀 1, 2학년 50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불성실한 응답의 경우를 제외한 43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적 지지 질문지는 학생들에게 평정방법을 설명해주고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자녀의 행동평가에 대한 어머니용 질문지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한 후, 각 가정에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AS/PC+를 이용하여 Cronbach의 α 계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Duncan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의 일반적 경향

<표 1>를 보면, 청소년 전체의 총 지지 점수가 평균 3.45점으로 중간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지지원에서는 가족 지지보다 또래 지지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지지 유형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다른 하위유형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가 부모에 의한 영향보다는 또래의 영향이 증가하는 시기(장취숙, 1995)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시기에 청소년 자녀들이 지지 유형중에서 정서적인 측면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의 일반적 경향

영역	구 분	M (SD)
지 지 원	가족 지지	3.43 (.91)
	또래 지지	3.53 (.70)
	전 체	3.49 (.80)
지 지 유 형	정서적 지지	3.53 (.99)
	정보적 지지	3.33 (.90)
	자존감 지지	3.40 (.79)
	전 체	3.42 (.89)
	전 체 지 지	3.45 (.84)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원, 지지유형과 부적응 차이

<표 2>와 같이 자녀의 성별, 부, 모의 학력, 소득

에 따라서 사회적 지지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또래 지지를, 부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이 가족 지지를, 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이 가족 지지를, 고졸인 집단이 또래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가족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였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원의 차이

변인	지지원	가족 지지	또래 지지
		M (SD) Duncan	M (SD) Duncan
성별	남	17.30 (4.56)	17.32 (3.76) a
	여	16.93 (4.51)	17.98 (3.19) a
	F값	0.74	3.87*
부의 학력	중졸이하	15.96 (3.83) b	16.86 (3.25)
	고 졸	17.10 (4.59) a	17.92 (3.30)
	대졸이상	17.85 (4.71) a	17.67 (3.90)
	F값	4.59*	2.75
모의 학력	중졸이하	16.42 (4.20) b	17.08 (3.35) a
	고 졸	17.26 (4.50) b	18.02 (3.25) a
	대졸이상	18.80 (5.28) a	17.78 (4.76) a
	F값	5.59**	3.42*
소득	99만원이하	16.57 (4.22) b	17.56 (3.67)
	100-199만원	16.82 (4.51) b	17.66 (3.40)
	200만원이상	18.00 (4.68) a	17.64 (3.64)
	F값	3.45*	0.02
모의 결혼 만족	불만족	16.82 (4.78)	17.19 (4.15)
	보통	16.39 (4.47)	17.75 (3.05)
	만족	17.52 (4.48)	17.68 (3.56)
	F값	2.66	0.53

* $p < .05$, ** $p < .01$

<표 3>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 유형은 자녀의 성별, 부, 모의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였다. 부의 학력이 고졸 집단인 경우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가 높았으며, 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이 정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 유형의 차이

변인		지지유형	정서적 지지 M (SD) Duncan	정보적 지지 M (SD) Duncan	자존감 지지 M (SD) Duncan
성별	남		20.20 (6.33) b	9.71 (2.76)	16.60 (4.11) b
	여		22.17 (5.37) a	10.09 (2.60)	17.42 (3.74) a
		F값	11.98***	2.16	4.67*
부의 학력	중졸이하		19.53 (6.28) b	8.94 (2.49) b	16.03 (3.67) b
	고 졸		21.74 (5.72) a	10.25 (2.56) a	17.27 (3.83) a
	대졸이상		21.22 (6.01) a	9.90 (2.86) a	17.13 (4.21) a
		F값	4.18*	7.34***	3.09*
모의 학력	중졸이하		20.34 (5.98)	9.49 (2.54) b	16.43 (3.76)
	고 졸		21.58 (5.72)	10.03 (2.68) ab	17.28 (3.81)
	대졸이상		21.88 (6.76)	10.54 (3.03) a	17.52 (4.92)
		F값	2.46	3.55*	2.69
소득	99만원이하		21.14 (6.12)	10.27 (2.55)	17.25 (4.06)
	100-199만원		21.00 (5.96)	9.68 (2.75)	16.83 (3.87)
	200만원이상		21.41 (5.93)	10.03 (2.65)	17.12 (4.04)
		F값	0.19	1.69	0.42
모의 결혼 만족	불만족		21.00 (6.57)	10.07 (3.20)	16.80 (3.88)
	보통		20.80 (5.92)	9.61 (2.57)	16.95 (3.67)
	만족		21.34 (5.86)	9.97 (2.63)	17.05 (4.10)
		F값	0.35	0.85	0.10

* p<.05, *** p<.001

보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여아들이 남아보다 자기 표현 및 타인관계의 친밀한 관계형성 등의 대인관계 지향적인 사회화 경험(Barnett, Brauch, & Biener, 1987; Depaulo, 1982)으로 사회적 지지 지각에 성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의 학력이 고졸 집단인 경우 타 집단보다 모든 지지유형이 높은 것은 자녀에게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여 이에 따른 욕구나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지를 많이 해준다고 보여지며, 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에서 정보적 지지가 높은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등의 실제적인 지지를 많이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표 4〉에서 보면 청소년의 부적응은 자녀의 성별,

부모의 학력, 소득, 모의 결혼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사회적 위축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우울과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부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집단이 우울, 불안, 과활동성, 비행이 높게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이 과활동성이 낮게 나타났다.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집단이 사회적 위축이 낮게 나타났으며, 모의 결혼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집단이 부적응의 전체 하위영역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자녀의 부적응에 모의 결혼만족도가 공통적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부간의 불화가 청소년 비행같은 부적응을 일으키는 주요인이 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김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적응의 차이

변인	부적응	사회적 위축	우울	불안	과활동성	공격성	비행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성별	남	1.75 (1.56) a	1.28 (1.60) b	2.21 (1.76)	2.43 (1.65)	1.12 (1.16) b	0.60 (1.03)
	여	1.40 (1.47) b	1.73 (1.79) a	2.40 (1.80)	2.30 (1.76)	1.51 (1.36) a	0.58 (1.11)
	F값	5.73*	7.82**	1.16	0.63	10.48**	0.04
부의 학력	중졸이하	1.78 (1.54)	1.90 (1.72) a	2.86 (1.70) a	2.67 (1.90) a	1.40 (1.31)	0.96 (1.32) a
	고 졸	1.59 (1.57)	1.44 (1.79) b	2.26 (1.83) b	2.45 (1.66) ab	1.36 (1.41)	0.56 (1.07) b
	대졸이상	1.44 (1.46)	1.34 (1.56) b	2.04 (1.69) b	2.05 (1.62) b	1.16 (1.01)	0.42 (0.82) b
	F값	1.37	3.07*	5.69**	4.07*	1.27	7.07***
모의 학력	중졸이하	1.66 (1.52)	1.60 (1.71)	2.51 (1.82)	2.56 (1.79) a	1.40 (1.34)	0.71 (1.14)
	고 졸	1.57 (1.57)	1.50 (1.72)	2.16 (1.80)	2.34 (1.65) a	1.27 (1.27)	0.58 (1.06)
	대졸이상	1.38 (1.35)	1.16 (1.69)	2.26 (1.75)	1.84 (1.57) b	1.14 (1.03)	0.30 (0.79)
	F값	0.64	1.24	1.85	3.47*	1.02	2.82
소득	99만원이하	1.43 (1.40) ab	1.47 (1.69)	2.36 (1.73)	2.59 (1.74)	1.29 (1.30)	0.64 (1.08)
	100-199만원	1.76 (1.59) a	1.50 (1.63)	2.26 (1.70)	2.41 (1.73)	1.29 (1.26)	0.63 (1.05)
	200만원이상	1.34 (1.48) b	1.50 (1.88)	2.33 (1.95)	2.15 (1.63)	1.35 (1.29)	0.50 (1.10)
	F값	3.53*	0.01	0.11	1.76	0.10	0.76
모의 결혼 만족	불만족	2.20 (1.89) a	2.36 (1.94) a	3.00 (2.00) a	2.89 (1.94) a	1.73 (1.37) a	0.98 (1.34) a
	보통	1.65 (1.36) b	1.58 (1.68) b	2.23 (1.80) b	2.42 (1.74) ab	1.46 (1.43) ab	0.64 (1.03) b
	만족	1.41 (1.48) b	1.27 (1.62) b	2.18 (1.69) b	2.23 (1.62) b	1.14 (1.15) b	0.49 (0.99) b
	F값	6.42**	9.90***	5.07**	3.62*	6.27**	5.19**

* p<.05, ** p<.01, *** p<.001

선애, 1994; 최운진, 1993). 즉, 부부의 부정적인 결혼생활은 자녀에게도 애착을 감소시켜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3.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원, 지지유형에 따른 부적응의 차이

〈표 5〉와 같이 사회적 지지원에 따라 부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 지지는 부적응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즉, 가족 지지가 높은 집단이 우울, 공격성, 비행, 과잉불안, 과활동성, 사회적 위축이 낮게 나타났다. 또래 지지는 과잉

불안, 사회적 위축, 과활동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즉, 또래 지지가 높은 집단이 과잉불안, 사회적 위축, 과활동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청소년기에 또래와의 동조행위가 증가하는 시점으로 또래의 지지가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기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는 때이지만 지속적으로 적절한 가족 지지의 제공이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표 6〉을 보면, 지지 유형에 따라 부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정서적 지지는 사회적 위축, 과잉불안 영역에서, 정보적 지지는 과잉불안 영역에서, 자존감 지지는 사회적 위

〈표 5〉 사회적 지지원에 따른 부적응의 차이

부적응	지지원	가족지지			또래 지지		
		상(N=133) M(SD)	중(N=180) M(SD)	하(N=121) M(SD)	상(N=139) M(SD)	중(N=190) M(SD)	하(N=105) M(SD)
사회적 위축		0.70(.38)	1.00(.93)	1.14(1.08)	0.80(.71)	0.90(.77)	1.23(1.11)
F값			4.53*			4.10*	
Duncan		b	a	a	b	b	a
우울		0.77(.63)	1.09(.96)	1.30(.96)	1.00(.97)	1.00(.79)	1.22(.96)
F값			6.57***			1.45	
Duncan		b	a	a			
과잉불안		0.86(.76)	1.25(.91)	1.44(1.18)	0.89(.74)	1.10(.94)	1.71(1.31)
F값			5.61**			10.62***	
Duncan		b	a	a	b	b	a
과활동성		2.09(1.08)	2.41(1.19)	2.55(1.23)	2.04(1.01)	2.50(1.09)	2.51(1.32)
F값			2.91*			4.14*	
Duncan		b	ab	a	b	a	a
공격성		0.63(.46)	0.82(.60)	1.19(.92)	0.87(.98)	0.82(.77)	0.94(0.81)
F값			6.94***			0.32	
Duncan		b	b	a			
비행성		1.61(1.12)	2.15(1.32)	2.35(1.21)	1.78(1.08)	2.14(1.22)	2.21(1.23)
F값			7.19***			2.66	
Duncan		b	a	a			

* p<.05, ** p<.01, *** p<.001

〈표 6〉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른 부적응의 차이

부적응	지지유형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자존감 지지		
		상(N=120) M(SD)	중(N=163) M(SD)	하(N=151) M(SD)	상(N=130) M(SD)	중(N=190) M(SD)	하(N=114) M(SD)	상(N=159) M(SD)	중(N=128) M(SD)	하(N=147) M(SD)
사회적 위축		0.80(.73)	0.89(.87)	1.13(1.01)	0.83(.74)	0.94(.85)	1.10(1.07)	0.71(.63)	1.02(.90)	1.15(.98)
F값			2.96*			1.55		5.54***		
Duncan		b	a	a			b	a	a	
우울		1.10(.93)	1.05(.80)	1.02(.88)	1.01(.85)	1.01(.84)	1.17(.92)	0.93(.76)	1.09(.68)	1.15(.83)
F값			0.15			0.78		1.45		
Duncan										
과잉불안		0.98(.90)	1.03(.92)	1.51(1.09)	0.86(.70)	1.16(.74)	1.58(.93)	0.79(.75)	1.17(.86)	1.62(1.11)
F값			6.05**			7.88***		13.61***		
Duncan		b	b	a	b	b	a	c	b	a
과활동성		2.21(1.06)	2.28(1.04)	2.55(1.07)	2.10(1.03)	2.43(1.02)	2.47(1.16)	2.02(1.10)	2.46(1.07)	2.62(1.16)
F값			1.80			2.38		6.12**		
Duncan							b	a	a	
공격성		0.75(.61)	0.84(.61)	0.97(.60)	0.73(.65)	0.91(.63)	0.95(.87)	0.75(.79)	0.89(.97)	0.98(.98)
F값			1.15			1.29		1.33		
Duncan										
비행		1.90(1.24)	2.05(1.04)	2.14(1.16)	1.80(1.26)	2.14(1.09)	2.14(1.10)	1.72(1.13)	2.19(1.18)	2.28(1.10)
F값			0.69			1.94		4.97**		
Duncan							b	a	a	

* p<.05, ** p<.01, *** p<.001

축, 과잉불안, 과활동성, 비행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사회적 위축, 과잉불안이 낮았으며, 정보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과잉불안이 낮았다. 또한, 자존감 지지가 높은 집단이 사회적 위축, 과잉불안, 과활동성, 비행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 지지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지각 수준이 부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들 지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지지를 제공할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사회적 지지는 중간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지지원은 가족 지지보다는 또래 지지가, 지지 유형은 정서적 지지가 다른 유형의 지지보다 다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원, 지지 유형과 부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원은 자녀의 성별, 부, 모의 학력,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으며, 지지 유형은 자녀의 성별, 부, 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은 자녀의 성별, 부, 모의 학력, 소득, 모의 결혼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원, 지지 유형 수준에 따라 부적응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먼저 사회적 지지원에서는 가족 지지를 높게 받는다고 지각한 집단이 우울, 공격성, 비행 등의 모든 영역에서 부적응이 낮게 나타났다. 또래 지지를 높게 받는다고 지각한 집단이 과잉불안, 사회적 위축, 과활동성이 낮게 나타났다. 지지 유형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이 사회적 위축, 과잉불안이 낮았으며, 정보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 집단이 과잉불안이 낮았다. 또한 자존감 지지가 높은 집단이 사회적 위축, 과잉불안, 과활동성, 비행이 낮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결론을 내려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2학년 시기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발달적 스트레스나 일상적 스트레스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으로 이러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한 때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중간정도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과 또래의 지지원에게서 받는 지지가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또래와의 동조행위가 증대되어 가는 시기이지만, 가족 지지 특히, 부모 지지가 부적응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 보아 부모는 자녀에게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체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 함께 가족간의 적절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셋째, 자존감 지지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가 부적응을 예방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존감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부적응의 많은 영역에 중요한 요소임이 입증되었으므로 청소년 자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정해주거나, 애정, 관심등의 지지 기반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학생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표집의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지지원에 따른 지지 유형까지를 재조직화시키지 못한 점, 또한 어머니의 부적응 평정방식이 객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한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에 관한 실증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 자녀에게 부적응을 완화시켜 주는 사회적 지지의 특성을 밝혀봄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발달과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참 고 문 헌】

- 1)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 2) 김선애(1994). 아동 및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연구: 가족요인을 중심으로. 상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 3) 박지원(1986). 사회적 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4) 오경자, 이해련(1990). 한국 아동 청소년의 문제 행동 증후군 연구 I : 4-5세, 6-11세, 12-16세 남아 CBCL자료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9 (1), 33-55.
- 5) 장휘숙(1995). *청년심리학*. 장승출판사.
- 6) 최윤진(1993).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 개발원.
- 7) 한미현(1993).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행동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82-194.
- 8) 한미현,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9) 홍강의, 홍경자(1985).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문제 연구(I) : 부모 설문에 의한 역학적 조사, *정신의학보*, 9(2), 48-63.
- 10) 홍강의, 홍경자(1985).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문제 연구(II) : 요인 분석에 의한 행동문제 분류. *정신의학보*. 11(1), 39-47.
- 11) 홍경자(1985).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양상 도형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 여대 박사학위논문.
- 12) Achenbach, T.M.(1978). The child behavior profile : I. Boys aged 6-11.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3, 478-488.
- 13) Asher, S.R. & Dodge, K.A.(1986). Identifying children who are rejected by their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44-449.
- 14) Barnes, G.M. & Farrell, M.P.(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763-776.
- 15) Barnes, G.M. & Windle, M.(1987). Family factors in adolescent alcohol and drug abuse. *Pediatrician-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Health*, 14, 13-18.
- 16) Barnett, R.C., Baruch, G.K., and Biener, L.(1987). *Gender and stress*. The free Press. N.Y.
- 17) Berndt, T.J.(1981). Age changes and changes over time in prosocial intentions and behavior between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408-416.
- 18) Berndt, T.J. & Perry, T.B.(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40-648.
- 19) Bruhn, J.G., & Philips, B.U.(1984). Measuring social support: A synthesis of current approache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7, 151-169.
- 20) Bryant, B.K.(1985). The neighborhood walk : Sources of support in the middle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25-37.
- 21) Calabrese, R.L.(1987). Adolescence : A growth period conducive to alienation. *Adolescence*, 22, 929-938.
- 22) Cochran, M.M. & Brassard, J.A.(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 23) Cohen, S., & Hoberman, H.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24) Cohen, S., & McKay, G.(1983). Social support, stress and buffering hypothesis. In Baum, A., Singer, J. E., & Taylor, S.E.(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4, 253-267.
- 25) Cohen, S., & Wills, T.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social Bulletin*, 98, 310-357.
- 26) Coie, J.D., Dodge, K.A.(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 261-282.
- 27) Colten, M.E., Gore, S., & Asettine, R.(1991). The patterning of distress and disorder in a community sample of high school aged youth. In M.E. Coten & S. Gore(Eds.). *Adolescent stress : cause and consequences*(pp.157-180). N.Y.: Aldine de Gruyter.
- 28) Depaulo, B.(1982). Social-psychological processes in informal help seeking. In Wills, T.A.(Ed.). *Basic processes in helping relationships*. N.Y.: Academic Press.
- 29) Donovan, J.E. & Jessor, R.(1985), Structure of Problem Behavior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6), 890-904.
- 30) DuBois, D. L., Felner, R.D., Brand, S., Adan, A. M., & Evans, E.G.(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31) Dubow, E.F., & Ullman, D.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 32) Elliott, D.S., Huizinga, D., & Ageton, S.S.(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CA : Sage.
- 33) Felner, R.D., Ginter, M., & Primavera, J.(1982). Primary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 :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277-290.
- 34) Gove, W.R., & Crutchfield, R.D.(1982), The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Sociological Quarterly*, 23, 301-319.
- 35) Heller, K., Swindle, R.W., & Dusenbury, L.(1986). Component social support processes : Comments and integr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66-470.
- 36) House, J.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37) Kaplan, H.B., Robbins, C., & Martin, S.S.(1983). Antecedents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young adults : self-rejection, deprivation of social support, and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 93-115.
- 38) Leavy, R.L.(1983).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order : A review.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3-21.
- 39) Lefkowitz, M.M. & Tesing, E.(1984). Rejection and depression : Prospective and contemporaneous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76-785.
- 40) Procidano, M.E. & Heller, K.(1983). Measur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from family : Three validation stud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1-24.
- 41) Sarason, B.R., Pierce, G.R., Bannerman, A., & Sarason, I.G.(1993). Investigating the anteceden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 Parents' views of and behavior toward their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1071-1085.
- 42) Sarason, I.G., & Sarason, B.R.(1985). Social support : Insights from assessment and experimentation. In I.G. Sarason & B.R. Sarason(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39-50). Boston : Martinus Nijhoff,
- 43) Schaefer, C., Coyne, J.C., & Lazarus, R.S.(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381-406.
- 44) Steinberg, L.(1987), Familial factors in delinquency :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 235-268.
- 45) Wolchik, S.A., Beals, J., & Sandler, I.N.(1989). Mapping children's social support networks :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191-220. N.Y. : Wiley.